

미술관에 간 디자이너

January, 2017 | KIM MAN NA



REF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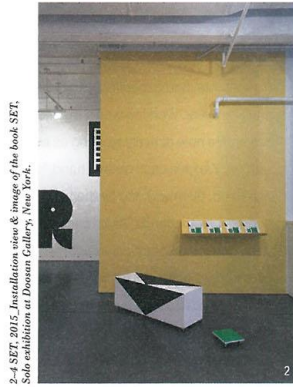
THE SHOW ROOM, 2011. Art shop collaboration project a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미술관에 간
디자이너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는 많지만, 김영나처럼 꾸준히 부름받는 디자이너는 없다.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건, 단단함에서 나온다.

EDITOR KIM MAN NA
PHOTOGRAPHER PARK SUNG YOUNG(PORTRAIT)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아트숍 UUL을 '전시(Show)를 위한 공간(Room)'으로 재해석했다. 아트숍에서 흔히 판매하는 연필, 노트, 컵 등의 '상품'을 김영나의 규칙으로 새롭게 제작해 전시했다. 2-4 뉴욕 두산갤러리에서 펼쳐진 <SET> 전시. 책 <SET>의 그래픽을 벽 크기로 확대해 시트지가 아닌, 벽화 작업으로 완성했다. 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후 진행된 프로젝트로, 김영나의 그래픽 작업을 보여주는 책을 제작했다. <SET> 책은 이후, 두산갤러리와 대구미술관, 국제갤러리의 전시로 이어졌고 앞으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2-1 SET, 2015. Installation view & image of the book SET. Solo exhibition at Doosan Gallery, New York.



국제갤러리는 최근 김영나와 전속 작가 계약을 맺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상업갤러리에서 디자인 베이스의 작가를 풀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에서 설차나 조각 등의 커미션 작업을 갤러리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미술 작가분들에 비해 좀 더 유연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일들을 도모해보자는 것이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국제갤러리는 월드 클래스 수준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의 바우하우스 전시, 과천관 아트숍 UUL과의 콜라베레이션 'THE SHOW-ROOM',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이후 서울과 뉴욕의 두산갤러리에서의 전시, 그리고 국제갤러리 그룹전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영나가 한국에 온 지 5년, 그 단단함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현재의 김영나가 되기까지, 꼼꼼히 다져왔다는 느낌이 든다. 학부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이 아닌,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다. 카이스트 공대 내에 있던 과라. 공업과 산업적인 디자인 측면을 강조했다. 유학을 생각했으나, 그 전에 국내 대학원에 먼저 갔다. 그래픽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자 한다면,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는 것이 기본이고 먼저라 생각했다. 당시 현대 학부 수업을 청강하면서 대학원 조교로 안상수 연구실에서도 일했다. 가장 기억나는 일은 2004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프로젝트. 당시 커미셔너가故 정기용 건축가였고, 안상수 연구실에서는 그래픽 디자인과 도록, 홍보물을 맡았다.

Graphic designer Na Kim has recently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Kukje Gallery. Why did one of the nation's leading fine art galleries offer to work with a design-based artist? "Galleries are often commissioned by some corporations to build sculpture or installation works, and it seems a designer is more flexible than the artists in fine art," she said humbly. But she has much more than that. Her world-class works have been invited to various exhibitions; 'THE SHOW-ROOM' with UUL art shop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olo exhibitions at Doosan Gallery both in Seoul and New York after winning the Doosan Artist Award in 2013; group exhibitions at Kukje Gallery. Clearly, the designer has been establishing herself as an artist for the last 5 years since she came back from her studies in the Netherlands. She majored in product design at KAIST and then graphic design at Hongik University, where she worked as an assistant to professor and renowned typographic designer Ahn Sang-soo. One of her most memorable experiences was Korean pavilion project at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2004 while Korean commissioner was the late architect Chung Gu-yn.



REFINED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미팅을 했는데 그게 꼬박 1년이었어요. 그 모든 프로세스를 경험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당시에 만난 제자들이 지금은 건축가, 디자이너로 여러 나라에서 일하고 있어 서로 도움이 되죠." 한 달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학교를 꼼꼼히 탐방한 후에 결정된 곳은 네덜란드 베르크플라츠 티포흐라피다. '타이포그래피 공방'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수업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학교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카리큘럼이다.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인쇄소까지 방문하는 것이 일어났으니, 네덜란드에서의 6년은 배움보다 '활동의 시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다. "가령, 선을 사용할 때 0.25포인트가 적당하다는 식으로 한국에서 일해온 방식들이 있었어요. 이걸 왜? 다시 되짚어가면서 처음부터 쌓아나갔죠." 김영나의 작업하면 떠오르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선과 도형, 컬러와 패턴 등의 그래픽 요소가 강한 이미지들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것에는 원래부터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김영나는 공산품과 같은 형태에서 드러나는 정해진 틀을 빌려 사용한다. "원이나 사각형 등 어떤 형태에서 가령, 원의 지름이 2센티미터인 것은 기능성처럼 제품마다 이유가 존재하죠. 그런 형태의 틀을 가져다 쓰는데 다른 방식의 규칙을 정해 저만의 레이어를 만들어가는 거죠. 모더니즘 시대의 미덕을 찾자면, 형태적인 면이 아니라 당시의 진보적인 태도, 사고방식이예요. 어떤 작업이든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는데 그럴 때마다 기준으로 삼는 건,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태도예요." 그래픽 디자인, 워크숍, 강의, 큐레이팅, 아트워크, 각자의 리듬과 박자에 따라 움직이고 확장하는 김영나의 놀라운 일들 중 최근의 전시 한 가지만 소개한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이후, 뉴욕에서 2015년에 가진 개인전이다. 디자이너의 역할극에 대한 질문을 전시 주제로 삼고, <SET>라는 이름의 책을 만들었다. "책은 익숙한 매체지만, 제 작업을 들여다보며 책을 만들 자신이 없어 네덜란드에서 함께 공부한 벨기에 디자이너, 요리스 크리티스(Joris Krutts)에게 디자인을 맡겼어요. 일종의 샘플북 형태죠. 각각의 작업들에 있는 원본 컨텍스트를 다 지워내고 오롯이 시각적인 형태, 컬러를 카테고리별로 배열한 형태예요. 책의 그래픽을 벽 크기로 확대해 전시장을 꾸렸죠. 전시장을 돌면 한 권의 책을 보게끔 시트지로 하는 것보다 벽화를 해보면 어떨까? 물성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갖게 되었고, 전시 후에 아무것도 남가지 않고 사라지는 것 또한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김영나는 미술사적 맥락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 되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의미있는 일이라 말했다.

HERITAGE
MUSEUM ©

"We, students, had a meeting with the professor once in a week, which lasted a full year. Working was a significant experience to me, and those students are now actively working as architects and designers in many countries. We give each other a hand." After carefully 'exploring' schools in Switzerland, Germany and Netherlands, Na Kim decided to go to Werkplaats Typografie, Netherlands. As its name means a 'typography workshop', the school focuses on practical assignments and projects commissioned by clients instead of theory-centered programs. The 6 years in the Netherlands can be described as a time of 'activities' in the career rather than learning path. "My first challenge was to deviate from the rules and standards I took for granted as a designer. I started to build up from scratch, thinking out of the box." Visual images and elements associated with Na Kim are strongly impressive such as lines, figures, colors and patterns. Not drawn to photographs or illustrations that could give concrete and specific information, Na Kim borrows some frames from industrial products. "Certain shapes like circle or square have its own reason for being formed that way. Borrowing the existing frames and applying different rules helps me build my own layers. The benefits of modernism are those advanced attitude and mindset. Whatever the works is, it's all about a series of choices. Be functional and rational." After winning the Doosan Artist Award, she held a solo exhibition in New York in 2015. With the theme of the role of designers, she created a publication titled <SET>. "Book is a familiar medium, but I wasn't confident in making a book so I asked a Belgian designer I was acquainted with during my studies in the Netherlands. It's sort of a sample book. I removed original texts and rearranged them by categories. I enlarged the book to the wall size and displayed it in the hall so that viewers can feel like they read though a whole book after they make a round of the hall. How about painting murals instead of attaching sheets? It was quite a breath of fresh air." The designer said she prefers working and making things work to being positioned somewhere in the context of art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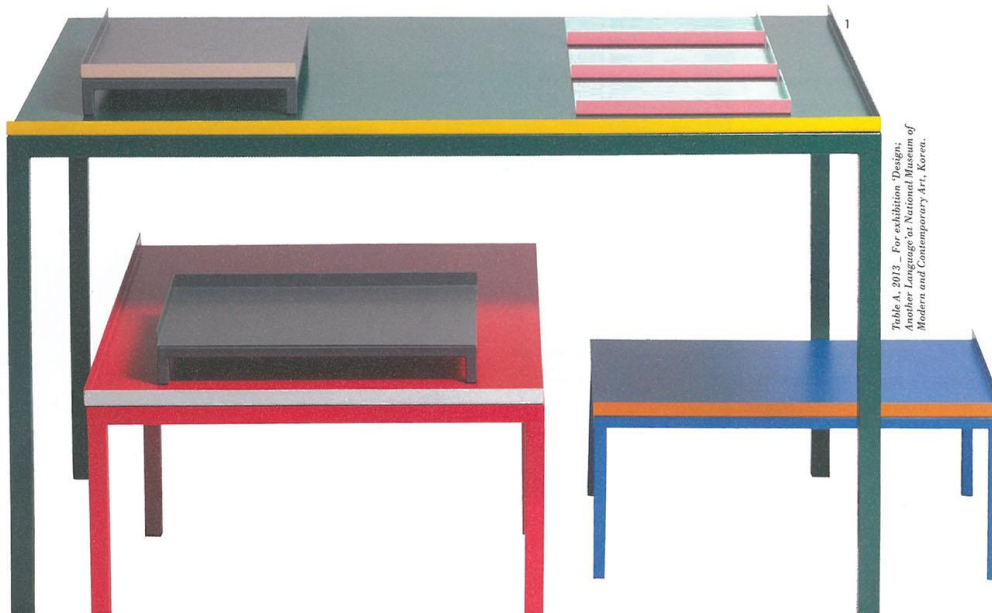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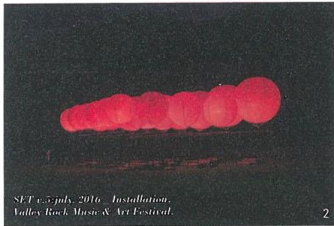


Table A, 2013. For exhibition 'Design: Another Language' a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13', 36 Frames, 2014. For an exhibition 'Human, Space, Machine' a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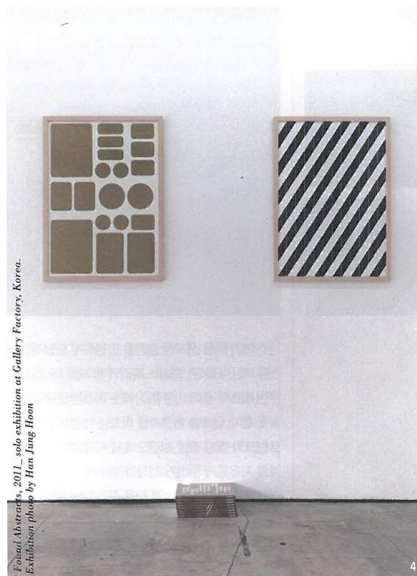
최근 부암동 주택가 한켠으로 이사한 '테이블유니온'에서 김영나를 만났다. 작가 뒤의 멋스러운 조형에는 사연이 있다. 시립미술관 전시에 쓰였던 간판을 활용, 커먼센터의 전시에 참여했고 작품은 다시 작업실의 조형으로 돌아왔다. 테이블유니온은 2013년부터 서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느슨한 협업 플랫폼이다. 김영나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구성 멤버에 따라 전시, 디자인, 출판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스(COS)의 청담동 플래그십 오피스에서 다복스사이아티의 구정연과 함께 리딩룸과 북스토어를 만들고, 쇼케이스 성격의 전시를 기획했다.

The interview with Na Kim took place in the new location of 'Table Union', situated in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of Buam-dong. The space, home to the Seoul-based graphic design studio and collaborative platform opened in 2013, features an artistic light fixture made with a sign she got from an exhibition at Seoul Museum of Art. With Na Kim as the central figure, they are working on exhibitions, designs and publications; they recently worked to create a reading area, bookstore and exhibition space for COS Cheongdam store in collaboration with The Book Society.

책방 사진 제공: 테이블유니온(www.tableunion.com)



1 국제표준화기구가 규정하는 에이(A) 시리즈의 종이 판형은 인쇄물의 판형부터 사무용품까지 환경을 제한한다. 이러한 표준을 낫선 시각에서 바라본 테이블 A 2 (SET)에서 추출한 형태를 심더 컴 밤에 조형 기능을 하는 설치물로 표현했다. 자산 벨리 록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3 1920년대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 중 하나였던 무대 퍼포밍을 재현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 프레임별로 분석, 세 명의 움직임(빨강,파랑,노란 옷을 입은)을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했다. 4 김영나가 한국에 오기 전인 2011년, 갤러리 팩토리에서 열린 개인전 전경.



Personal Abstracts, 2011. Solo exhibition at Gallery Factory, Korea. Exhibition photo by Han Jung Hoon